

3대 가족형 집합주거의 실용화를 위한 기초연구(1)

- 계획기준의 도출과 계획기준을 이용한 3대 가족형 주거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development of three generation family type apartment plan

- Deduction of standard plan and compare standard plan with three generation family type apartment -

윤삼석* / Yun, Sam-Seok

김진모** / Kim, Jin-Mo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need of three generation family house that is traditional house type of Korea. First, the pre-research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And then, there are three type's grouping like those are as follows:

- 1) Recognition of three generation family house.
- 2) Type of three generation family house.
- 3) Plans of three generation family hous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f the conditions are better than now, recognition is positive. Type are living together and next doors type can direct access. Some standart plan is been about room's number, house's area, bath's number and so on.

Second, try to compare plan - this plan already has been used building - with standard plan. The compare result are as follows; three generation family houses - be used by whom - do not apply to standard plan. Almost houses have a three room that is less than the standard plan. All houses have a number of two bath that is less than the standard plan too. Condition of consideration is suitable to ages in next door type, but in case of living together type that consider user whom is use the inner room. Separation of entrance distinguish between the living together type and the next doors type. In case of living together type Dining with Kitchen room's number is one, but the next doors type have the number of two.

키워드 : 3세대, 가족주거, 의식, 유형, 계획기준

Keywords : Three-generation, Family house, Recognition, Type, Standard 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의 흐름을 타고 건축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그 중에서도 주거에 대한 관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적 가족모델로서 핵가족화가 대두되었고,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노인주거에 관한 관심도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오던 핵가족화는 가족간의 갈등

과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의 원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등 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이제 그 역량을 재평가 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핵가족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판단의 요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형태인 대가족, 특히 3대 가족가구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현재 많지는 않지만 3대 가족형 집합주택이 건립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3대 가족형 주거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한국형 미래주거의 가치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그 연구 방향이 노인주거와 관련한 연구로

* 정희원,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교신저자, kimjinmo@kw.ac.kr)

1)이연숙 외 3명, 삼대가족의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서 시도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로는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점차 노인세대들도 그들만의 사회활동영역을 요구하였고, 그에 부합해 노인세대만을 위한 주거시설, 치료시설, 복지시설 등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세대 간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는 3대 가족에 관한 요구가 줄어든 원인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11.7%²⁾라는 무시 못 할 수치의 가구가 3대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3대 이상의 대가족이 함께 살만한 공동주택의 공급이 부족³⁾한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 69.4%⁴⁾의 인구가 비경제활동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45.6%⁵⁾의 6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경제적 곤란을 들고 있다. 최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3대의 동거비율이 증가했다.⁶⁾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상황도 제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게한다. 따라서 3대 가족 주거에 관한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 학계의 관심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연구의 경향을 정리하는 것은 향후 3대 가족 주거의 발전 방향과 관련 연구의 미래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3대 가족형 주거로서 적합한 물리적 계획 기준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통해 현재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3대 가족형 집합주거를 선정하여 그 적합성을 재검증하는데 있다. 현재 많은 선행연구들이 3대 가족형 주거의 필요성과 계획요건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나 계획요건과 실제 건립되어 사용되는 3대 가족형 주거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비교를 통한 연구는 건립된 3대 가족형 주거의 적합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는 3대 가족형 주거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선행연구논문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창간호 1985~2006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창간호 1992~2006년),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창간호 1990~2006년), 한국노년학회 논문집(창간호 1980~2006년), 대한가정학회지(창간호 1973~2006년)이 포함되었다.⁷⁾ 이들 논문집에 게재된 3대 가족형 주거에 관한 논문을 선정하기 위하여, AURIC과 KISS에서 키워드 3대와 3세대, 삼세대, 삼대 등으로 검색된 논문 중에서 제목과 내용을 파악한 후, 3대 가족의 주거에 관한 논문(총 17편)을 선별해 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유형을 분석한다. 그 후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3대 가족형 주거에 관한 계획기준을 고찰한 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현재 건립되었거나 계획되어있었던 3대 가족

형 주거평면 10개를 선정하여 계획기준과 비교분석한다. 주거평면의 선정이유는 문헌자료와 IT자료⁸⁾를 통해 탐구해본 결과 발견할 수 있었던 평면이 1983년 이후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2. 3대 가족주거 연구의 세 가지 유형

본 논문에서 언급한 3대 가족은 일반적으로 노부부 세대 + 아들부부 세대 + 손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⁹⁾ 3대 가족형 집합주거는 초기계획단계부터 이러한 3대 가족이 불편함 없이 함께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집합주거를 의미한다.

과거 3대 가족가구에 관한 연구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3대 가족주거에 관한 의식
2. 3대 가족주거의 유형
3. 3대 가족주거의 모델(계획)

위의 3가지 유형으로 연구의 방향을 구분한 이유는 첫째 3대 가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3대 가족가구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명 자료가 될 수 있고, 둘째 3대 가족의 다양한 유형을 연구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유형과 현실적 제반 조건등을 고려한 적합한 유형을 계획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셋째 각각의 단위 계획요구를 반영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존재하고 있는 3대 가족형 주거와의 비교분석에 의한 발전방향을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3대 가족주거에 관한 의식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족 형태인 3대형 주거의 비중보다 산업화의 일환인 핵가족 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핵가족화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유발의 한 원인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문제, 세대간의 단절문제 등의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렇게 핵가족에 관한 문제가 하나씩 발견됨에 따라 경험이 풍

2)통계청, 부모 생존 여부 및 동거자, 2005

3)황성근, 중앙일보, 2006. 11. 26.

4)통계청, 연령별 비경제활동 인구, 2005

5)통계청,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2005

6)미국에서는 1990년대 보다 2000년대에 들어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7)검색기관은 위의 논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AURIC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과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로 선정하였다.

8)아파트 백과, 세진기획사, 2006

송태교, 3세대를 위한 복층형 아파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2002.

www.naver.com - 부동산, 지식인 등

9)단, 이때 노부부 세대와 아들부부 세대는 편부·편모를 포함한다.

부한 노인세대와 보호가 필요한 손·자녀 세대가 함께 살며 교육과 부양,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3대형 주거에 관한 관심이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정화 외 4명(2006. 5.) 의하면 그러한 연구의 관심은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방향이 사회가 고령화되고 일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어나는 노인복지의 요구에 편승하여 지역사회 통합형으로 재택거주(aging in place)모형으로 한국의 미래주거형 모델로서 제시되었으며, 이후 이와 유사한 연구는 더 이상 시도되지 않았다¹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를 위한 주거로의 변화는 특정 세대만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3대 가족형 주거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3대 가족형 주거는 모든 세대에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노인주거와는 차이를 가지며 독립적으로 미래주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3대 가족형 주거시설이 한국형 미래주거모델로서의 그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 실제 사용할 주체들의 3대 가족에 관한 의식을 정의 내리는 것은 그 첫째라 할 수 있다. 실제 주거를 사용할 사람들의 3대 가족형 주거에 관한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3대 가족형 주거의 지속적인 존재의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 중 3대 가족형 주거에 관한 의식을 다룬 논문은 <표 1>과 같다.

<표 1> 3대 가족주거에 관한 의식

제 목	저 자	학 회	년 도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연숙 외 3명	한국노년학회	1991
실증적 관점에서 본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연숙 외 3명	한국주거학회	1992a
3대동거가족의 세대별 침실공유실태와 노인주거에 관한 의식 및 동거만족도 비교	김은정, 조재순	대한가정학회	1996
3세대 同居住宅에 대한 부모-손자녀 世代의 住意識	이동숙, 윤충열	한국주거학회	2000
3세대 동거여부에 따른 同居住宅에 대한 의식 연구 - 손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이동숙, 윤충열	대한건축학회	2001
青少年의 三世代 同居意識에 관한 研究	강혜원, 김인희	대한건축학회	2002
수도권거주 50대 중년층의 3세대동거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최정신	대한건축학회	2004

<표 1>의 논문은 실제 3대 가족형 아파트로 계획된 주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각각의 세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3대가 함께 사는 계획에 관한 의식을 설문 조사와 방문 조사를 통해 연구되었다.

이연숙 외 3명(1991, 1992a), 이동숙 외 1명(2000, 2001), 강혜원 외 1명(2002)와 최정신(2004)의 연구는 3대 가족형 주거에 관한 각 세대별 의식에 관한 연구로 각각의 세대들의 장·단점에 관한 의식은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3대 동거에 대한 세대별 장·단점

분류	장점	단점
주부	'부모님을 모시고 살므로 떳떳하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마음이 편하다' '경로효친 사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	'외출시 신경이 쓰인다' '서로 눈치를 보며 마음 터놓고 지내지 못한다'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의견충돌이 있다'
청소년	'자신의 양육 및 교육과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사생활 침해', '손자녀 자신의 불편함'
청년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과 자녀교육', '예의범절', '인성교육', '가족애',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양육문제 해결'	'프라이버시나 개인생활의 제약문제', '주말면적이나 경제적 문제', '사회활동으로 인한 시간상의 제약', '세대차이로 인한 대립과 고부간의 갈등'
노인	'서로의지가 되므로 마음이 든든하다.'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보호에 유리하다.' '어려운 일의 발생시 대처가 용이하다'	'서로눈치를 봐야 한다'
비교 및 분석	·교육적 측면의 장점은 주부, 청소년, 청년에서 나타남 ·심리적 안정과 건강상태에 관한 안정은 노인세대에서 나타남	·세대차이는 주부와 청년에서 나타남 ·사생활 침해는 청소년과 청년에서 나타남 ·서로간의 눈치를 봐야하는 점은 주부와 노인세대에서 나타남

3대 동거시의 장점으로서는 심리적 측면, 특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측면과 교육적 효과인 사회문화적 측면을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에는 심리적, 신체적인 의지 측면을 삼대동거의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상중 하나인 효(孝) 사상과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노인세대의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도 그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서로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세대간의 프라이버시 보장의 요구성에 따른 원인으로 생각된다.

3대 동거시의 이상적인 거주거리에 관한 연구는 이연숙 외 3명(1992a, 1992c)에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주거단위가 개발되어 제공되어 있고, 노인복지 서비스 체제가 통합되어 있으며 그 외 가족복지시설이 기존 아파트보다 강화된, 새로운 주거환경개념의 대안이 가미된 주거가 개발 보급된다면 서울시내(29.6%) > 지방(16.4%) > 같은 단지(16.2%)의 선호도가 동거(54.4%) > 인접주거(1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¹¹⁾ 서울시내(77.9%) > 같은 구(48.3%) > 같은 단지(36.8%) > 같은 건물(20.6%) > 동거(10.2%)의 선호도

10) 이정화 외 4명, 노인을 위한 환경계획 디자인 분야국내 연구의 흐름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6. 5.

11) 이연숙 외 3명, 실증적 관점에서 본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992a. 6.

가 같은 단지(70.0%) > 같은 건물(55.7%) > 동거(4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¹²⁾

위와 같은 결과로 인해 현재의 환경에서는 3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더 크지만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된 주거형태가 나온다면 3대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3대 가족형 주거에 대한 미래 한국형 주거로서의 타당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3대 가족형 주거의 지속적인 요구와 발전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2.2. 3대 가족주거의 유형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를 요구하는 최근의 흐름은 자칫 획일적인 계획으로 흘러갈 수 있는 3대 가족형 주거의 필요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3대 가족형 주거에 관한 연구는 그 선호도를 높이고 3대 가족형 주거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3대 가족주거의 유형

제 목	저 자	학 회	년 도
삼대가족 아파트의 단위주거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이연숙 최혜정	대한건축학회	1992b

<표 3>은 선행연구 중 3대 동거의 유형을 연구한 관련 논문이다. 삼대가족 아파트의 유형에 관한 언급은 의식이나, 물리적 계획을 다른 선행연구에서 모두 조금씩 언급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 중 이연숙·최혜정(1992b)의 연구는 각각의 선행연구들에서 가볍게 언급이 된 주거의 유형을 가장 잘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 생각하여 분류되었다.

이연숙 외 1명(1992)은 3대 주거의 유형을 거리, 방향, 공간 구성에 따라 수평동거형, 수평부분분리 동거형, 수평분리 동거형, 수직 동거형, 수직부분분리 동거형, 수직분리 동거형, 수평 인거형, 수평부분분리 인거형, 수평분리 인거형, 수직 인거형, 수직부분분리 인거형, 수직분리 인거형, 수평 근거형, 수평부분분리 근거형, 수평분리 근거형, 수직 근거형, 수직부분분리 근거형, 수직분리 근거형의 18개로 분류시켜 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18개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3대 가족형 주거의 유형은 크게 동거형, 인거형, 근거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각각의 유형의 기준은 거리와 공간계획에 의한 것으로 동거형은 동일주호에 공간상 완전 공유를, 인거형은 인접주호 내지 동일건물에 공간상 부분 공유를, 근거형은 다른건물·다른지역에 공간상 완전 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헌자료와 IT자료¹³⁾를 이용하여 탐구해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거형과, 인거형 주거는 실제 존재하고 있으나 근거형으로 계획된 주거의 모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이유

는, 외부로 통하지 않은 세대간의 접근을 1차적 접근으로 가정했을 때, 근거형 주거는 거리의 개념과 평면구성의 원리에 의해 외부로 통해 세대간 이동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념적인 설명으로는 3대 가족형 주거로서 주장이 가능하나, 물리적 공간구성에 의해 3대 가족형 주거로 설정하기에는 세대간의 접근에 있어 2차적 행동¹⁴⁾이 필요하므로 별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거형 계획에 있어서 공실인 거실로의 접근이 내부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통한 2차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도 세대간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할 수 있어 3대 가족형 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3대 가족형 주거의 유형은 각 세대간 공실로의 접근이 1차적 접근에 의해서 이뤄지는 동거형, 인거형 주거로 제안한다. 이 때 현관이 분리된 인거형의 경우라도 발코니를 통한 접근은 비록 외기와 접해있으나 아파트에 있어 발코니는 주택의 마당과 같은 개념이므로 1차적 접근으로 정의한다.

2.3. 3대 가족주거의 모델(계획)

현재 3대 가족형 주거는 실제 소수의 몇 개가 건립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사용실태와 선호도가 저하되어 있고, 이는 실 사용자들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공간계획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3대 가족주거의 요구계획에 관한 연구는 3대 가족주거로서의 적합한 계획기준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3대 가족주거의 모델(계획)

제 목	저 자	학 회	년 도
直系 三代를 위한 住居計劃	조원덕 박인식	대한건축학회	1985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의 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민경애 김혜정	가정복지학회	1987
中年の 住要求 측면에 본 三代同居住宅의 조건 - 同居를 좌우하는 要素와 同居에 적합한 住宅計劃을 中心으로	신경주	대한건축학회	1989
삼대가족의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이연숙 외 3명	대한건축학회	1992c
삼대가족형 아파트의 노인실 실내계획에 관한 연구	김정근	실내디자인학회	1993
三代 同居住戶의 空間計劃에 관한 研究	김정진 윤도근	대한건축학회	1994
3세대가족 동거주택을 위한 수직 2호 1주택 아파트 재구성 연구	손승광	한국주거학회	2003
3세대 동거가족을 위한 소형 아파트2호 1주택 리폼 연구	손승광	한국주거학회	2005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3세대 동거가구의 공간 사용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이동숙 윤충열	대한건축학회	2003

<표 4>는 선행연구 중 3대 동거의 모델(계획)을 연구한 관

12)이연숙 외 3명, 삼대가족의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2c. 6.

13)각주 8)과 동일함.

14)세대간 접근시 외부로 거치고 이동하는 것을 2차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런 논문이다. <표 4>에 선정된 논문을 고찰하고 분석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3대 동거의 적합 규모는 36~45평이 필요하며 방의 개수는 최소 4개이고, 평균 5.5개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 공간의 규모는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체감적 공간감이므로 전용면적상의 요구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의 개수는 3대 가족형 주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의 우리나라 가족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한 가정당 2명의 손자녀 세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침실의 희망 면적으로는 약 4.8평 정도의 규모를 원하고 있다. 희망하는 욕실의 개수는 욕조가 있는 욕실이 2개와 욕조가 없는 간이 욕실 1개로 각 세대별로 욕실의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욕실의 사적인 기능이 강화된 원인에 의한 것으로 프라이버시 보장의 요구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계획시의 배려사항으로는 노부모 세대는 향/채광/일조, 전용욕실, 난방 순으로 나타났고, 자녀부부세대는 전용욕실, 방음, 방 크기, 세대간의 분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세대 침실의 위치는 자녀부부세대쪽(38.8%)이 노부모세대쪽(25.5%)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관의 경우 분리에 관한 찬반이 동시에 보이고 있다. DK(Dining and Kitchen)의 경우 인거형으로 계획된 아파트에서는 별도로 설치하여 노인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DK를 분리하여 취사를 따로하는 것은 오히려 각 세대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광희석 외 1명¹⁵⁾(2002. 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3대 가족형 주거로서 적합한 계획기준을 정의하면 <표 5>와 같다.

<표 5> 3대 가족형 주거의 계획기준

계획사항	요구사항	고찰의 결과
단위세대규모	36~45평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중 어느 것을 설명하는지 나타나지 않으나 실생활에서 느끼는 면적으로 생각되어 전용면적의 요구라고 생각됨
방의 요구면적	4.8평	2인 1실 경우의 요구면적으로 생각됨
방의 개수	최소 4개 이상	가변성을 두어 가족 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
욕실의 개수	3개	세대별 1개씩의 공간계획
DK의 구성	1	기본적으로 식사 공간은 공유를 계획
거실의 개수	1+α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거실과 노인세대를 배려한 소규모 가족실의 공간계획

3. 계획기준과 평면의 비교분석

3.1. 평면에 관한 고찰

실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3대 가족형 주거평면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고 앞절에서 논의한 계획기준들과 비교분석을 하는 것은 3대 가족형 주거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6> 동거형 평면

위치	목동 45평형	목동 55평형	상계 35평형	상계 32평형	부산대대 35평형
건립	1983	1983	1988	1988	2000
유형	동거형	동거형	동거형	수직 동거형	동거형
평면					
R (방)	3	4	3	3	4
L (거실)	1	1	1	1	1
DK (주방+식당)	2	2	1	1	2K+1D
B (욕실)	2	2	2	2	2
E (현관)	1	1	1	1	2

<표 7> 인거형 평면

위치	목포하당 33평형	목포하당 43평형	상계 35평형	부산반송 35평형	광주라인 43평형
건립	1993	1993	1988	2000	1993
유형	인거형	인거형	인거형	인거형	인거형
평면					
R (방)	3	4	3	3	3
L (거실)	1	1	1	1	1
DK (주방+식당)	2	2	2	2	2
B (욕실)	2	2	2	2	2
E (현관)	2	2	2	2	2

3대 가족형 아파트는 <표 6>과 <표 7>의 목동 아파트(45평형, 55평형)는 463세대가 동거형으로 건립되었고, 상계 아파트(32평형, 35평형)는 32평형 복층형 120호, 35평형 동거형, 인거형 390호로 총 510호¹⁶⁾로 건립되었다. 부산 대대·반송 아파트(85㎡형)는 각각 12세대씩 24세대를 건립하였다. 목포 하당 아파트(33평형, 44평형)는 33평형 60세대와 44평형 90세대 등 150세대를 건립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인거형 35평형으로 설계 변경하여 건립되었고, 광주 라인아파트(43평형)는 53세대를 건립 분양하였으나 역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모두 일반아파트로 설계 변경되어 실제 건립되지는 못하였다.¹⁷⁾

현재 건립되어 사용되는 3대 가족형 집합주거는 크게 동거형과 인거형으로 구분되어지며, 특히 두 개의 유형의 구분요소로서 현관의 개수와 DK의 개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15) 광희석 외 1명, 隣居型共同住宅 居住者の 生活實態와 居住意識에 關한 研究 - 상계주공아파트 19단지의 조사를 통하여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2. 1.

16) 대한주택공사, 거주후평가, 1990

17) 송태고, 3세대를 위한 복층형 아파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2002.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집합주거의 유형중 근거형이 없다는 것은 3대 가족형 주거로서 근거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증명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90년대에는 3대 가족형 주거가 동거형과 인거형의 두 개의 유형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2000년대에는 인거형의 한 가지 유형만이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3.2. 계획기준과 평면의 비교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을 통해 3대 가족형 주거로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정리할 수 있었다. 각각의 기준을 3대 가족형 아파트의 평면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기준에 의하면 3대 가족형 주거로서 적합한 규모는 전용면적으로 평균 36~45평 사이였다. 현존하는 주거의 규모를 살펴보면 목동 아파트는 45평형대와 55평형대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해 있고, 상계 아파트의 경우 그 규모가 기준보다 작은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특성상 강남과 강북으로 대표되는 경제력의 기준에 의한 차이로 사료된다. 목포 하당 아파트는 기준 미달의 33평형대와 기준에 적합한 43평형대의 두 개의 평형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로는 35평형으로만 건립되어 그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의 반송과 다대 아파트 역시 35평형의 규모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 라인 아파트는 43평형대로서 그 기준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평형대의 규모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서 실용면적을 감안해 보면 목동아파트와 광주 라인 아파트만이 계획기준에 적합함을 보이고 있다.

3대 가족형 주거의 요구중 방의 개수는 평균 5.5개를 희망하고 있으며 최소 4개를 원하고 있다. 목동 아파트 55평형, 목포 하당 아파트 43평형, 부산 다대 아파트 35평형은 4개의 방을 계획하고 있어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관한 적합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계획은 방의 개수를 3개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40평형대 이상의 중대규모의 평면은 4개의 방을 계획하기에 충분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1990년대의 집합주거의 표준화된 평면계획은 중규모의 면적에는 3개의 방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적 중규모의 면적인 부산 다대 아파트의 경우 4개의 방의 구성이 가능했던 것은 인거형 아파트에서 보이는 두 개의 DK의 면적중 D를 공유하고 공실의 면적을 줄여주면서 나타나는 효과와 방의 면적을 줄여주는것을 통한 계획으로 사료된다. 주거의 성격상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분류되는 방의 규모는 평균 4.8평을 희망하고 있으나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있다. 이는 3대가족의 특성상 세대간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공실에 최대한의 면적을 할애하는데서 필

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욕실의 경우 욕조가 있는 욕실 2개와 욕조가 없는 간이 욕실 1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3대 가족형 아파트의 경우 욕실이 2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거형의 경우 노인세대¹⁸⁾를 위한 욕실 한 개와 부부세대와 손자녀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욕실로 구분되어 있고, 동거형의 경우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욕실 한 개와 나머지 두 개의 방에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의 표준화된 욕실 계획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계획시의 배려사항에 관한 요구는 노부모세대는 향/채광/일조, 전용욕실, 난방 순으로서, 3대 가족형 아파트는 모두 남향을 계획 하고 있다. 이는 서양의 주거와는 다르게 향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거형의 경우 독립된 세대쪽에 전용욕실을 설치하고 있어 비교적 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거형의 경우 큰 방을 사용하는 세대에게 전용 욕실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른 두 세대는 욕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부부세대의 배려사항은 전용욕실, 방음, 방 크기, 세대간의 분리 순으로 사생활에 관한 보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 5>와 <표 6>에 나타난 평면의 모식도는 자녀부부세대의 배려사항을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엔 역부족인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관의 분리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3대 가족형 주거를 인거형과 동거형으로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목동 아파트, 상계 아파트(동거형)등의 동거형의 경우 현관의 공유를, 상계 아파트(인거형), 목포 하당, 부산 다대, 부산 반송 아파트 등의 인거형의 경우 현관의 분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면의 내부 계획상 목동 아파트의 경우 그 공간계획이 인거형에 가까우나 현관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여 동거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DK의 경우 목동 아파트, 상계 아파트의 동거형은 1실을 계획함으로써 완전 공유를, 상계(인거형), 목포 하당, 부산 다대, 부산 반송 아파트 등의 인거형은 DK를 독립된 세대에 계획하는 2실형으로 분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DK의 분리가 세대간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계획된 것은 사실이나 3대가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간의 화합인 점을 고려하여 인거형의 DK의 공간을 소규모의 거실로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8)일반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보장하는 인거형의 경우 노인세대를 위한 계획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점차 노인세대들도 사생활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따른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들에 의하면 현재 3대 가족형 주거로서 건립되었거나 계획된 평면들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적 주거형태인 3대 동거주거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현존하는 3대 가족형 주거의 적합성에 대하여 선행연구의 방향을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후 계획기준을 도출하였다. 그 후 계획기준을 활용한 비교분석을 시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3대 가족주거에 관한 각 세대별 의식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측면과 손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노인세대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으며, 서로간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단점 모두 심리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대 동거시의 이상적 거리에 관한 의식은 원거리를 근거리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개선된 주거대안이 있을 경우 근거리에 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 측면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개선된 주거대안이 나온다면 3대 가족형 주거에 대한 의식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 이연숙 외 1명(1992)의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거리, 방향, 공간구성에 따라 18개의 3대 주거의 유형을 구분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는 3대 주거의 성격상 그 중 근거형은 외부로 통한 2차적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형태가 별거에 근접하여 3대 주거의 유형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거형의 주거 또한 2차적 접근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다면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하므로 별거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인거형의 경우 발코니를 통한 세대간의 접근이 가능하다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3대 주거의 유형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3대 가족주거의 모델(계획)에 관한 기준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방은 최소 4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희망면적으로는 평균 48평을 요구 하고 있었다. 방의 비중은 세대간 동등성을 요구 하고 있었다. 이는 세대간의 심리적 동등성을 바라는 것으로 사료된다. 욕실은 욕조가 있는 욕실 2개와 간이 욕실 1개를 원하였고, DK의 별도 설치보다는 노인세대를 위한 노인전용 응접실의 요구를 예측 할 수 있었다.

본론 2 에서는 기존의 3대 가족형 주거로서 건립된 집합주택의 모식도를 통해 유형 3의 기준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건립된 3대 가족형 주거는 규모면에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방의 개수 또한 4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를 계획하고 있어 최소 4개를 희망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욕실의 경우 모든 아파트가 2개를 계획하고 있어 욕조가 있는 욕실 2개와 욕조가 없는 욕실 1개를 희망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배려사항에 관한 요구는 남향을 통한 노인세대의 향/채광/일조의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표 5>의 모식도로는 판단하기에 어려운 한계를 드러냈다. 현관의 분리의 경우 3대 가족 주거의 유형중 동거형과 인거형을 구분짓는 기준이다. 그러나 현관 분리에 관한 요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계획적으로 적합성의 유무를 구분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DK의 경우 세대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DK의 분리를 이룬 인거형의 경우 노인세대를 위한 응접실로의 계획변경을 피한다면 조금 더 3대 가족형 주거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990년대와는 다르게 2000년 이후부터는 인거형의 주거만이 계획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거형의 주거가 사라진 이유에 관하여서는 공간의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건립되어 있는 3대 가족형 주거는 전체적으로 계획기준과의 적합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평면계획상의 물리적 기준에만 의거한 비교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근래의 집합주택의 평면은 과거 획일적이던 평면의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주변환경에 대한 배려와 복지 등과의 관련을 통한 계획도 시도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다양한 평면의 형태를 연구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계획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의 3대 가족형 주거로서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고, 조금 더 개선된 3대 가족형 주거의 발전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최근의 집합주택의 평면과 3대 가족형 집합주택의 계획기준과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3대 가족형 주거로서의 환경적인 측면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아파트 백과, 세진기획, 2006.
2. 신경주, 中年의 住要求측면에서 본 三代同居住宅의 조건 - 同居를 좌우하는 要素와 同居에 적합한 住宅計劃을 中心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
3. 이연숙·최혜정, 삼대가족 아파트의 단위주거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4. 이연숙·신화경·이선미·윤영선, 실증적 관점에서 본 삼대가족 아파트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992
5. 이연숙·오찬욱·이선미·백혜선, 삼대가족의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6. 김정근, 삼대가족형 아파트의 노인실 실내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

- 디자인학회 논문집, 1994
7. 김정진·윤도근, 三世代 同居住戶의 空間計劃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
 8. 이동숙·윤충열, 3세대 同居住宅에 대한 부모·손자녀世代的 住意識 한국주거학회지, 2000
 9. 배정민·정유선·윤정숙, 민영아파트 평면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 수도권 및 신도시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지, 2001
 10. 강혜원·김인희, 靑年層의 三世代 同居意識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2
 11. 곽희석·이경락, 隣居型共同住宅 居住者의 生活實態와 居住意識에 關한 研究 - 상계주공아파트 19단지의 조사를 통하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2
 12. 송태교, 3세대를 위한 복층형 아파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 2002
 13. 손승광, 3세대가족 동거주택을 위한 수직 2호 1주택 아파트 재구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3
 14. 이동숙·윤충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3세대 동거가족의 공간사용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
 15. 최정신, 수도권거주 50대 중년층의 3세대동거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
 16. 손승광, 3대 동거가족을 위한 소형 아파트 2호 1주택 리폼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5
 17. 이정화·이연숙·곽유정·이소영·김미선, 노인을 위한 환경계획 디자인 분야 국내 연구의 흐름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6
 18. 대한주택공사, 거주 후 평가, 2006
 19. 이연숙·신화경·이선미·백혜선,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로서 삼대가족 아파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논문집, 1991
 20. 조원덕·박민식, 直系 三世代를 위한 住居計劃,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85
 21. 김정진·윤도근, 三世代 同居住戶의 空間計劃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
 22. 김은정·조재순, 3대동거가족의 세대별 침실공유실태와 노인주거에 관한 의식 및 동거만족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1996
 23. 민경애·김혜정,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의 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87
 24. 신경주·최정신, 3대 동거형 아파트의 입주후 실태분석 - 상계지역의 경우 -, 대한가정학회지, 1989
 25. 신경주, 중년층의 삼대동거주택 조건에 관한 연구(I) - 청년중년노년층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회지, 1987
 26. 황성근, 중앙일보, 2006. 11. 26.
 27. 통계청, <http://kosis.nso.go.kr>, 통계 DB 서비스 KOSIS
 28. www.naver.com - 네이버 부동산, 지식인

<접수 : 2007. 6. 27>